

LIBRARY EPISODE

운영체 법인 인티원

은평구립도서관 | 상림마을작은도서관 | 녹번만화도서관

2020. 겨울 / 2021. 春 Vol.60

CONTENTS

- 02 도서관 수상
- 04 독서칼럼
- 06 도서관 이야기
- 09 은평도서문화축제, 집에(書(서) 책꼭!) / 나의 도서관 이야기
- 10 녹번만화도서관
- 11 삼림마을작은도서관
- 12 사서추천도서
- 14 서울시민앱카드
- 15 자원봉사자 / 기증자 명단 / 자료 기증 안내 및 방법



도서관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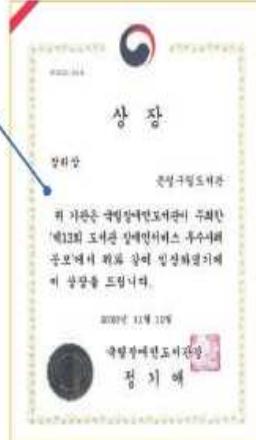
2020 도서관 수상

제13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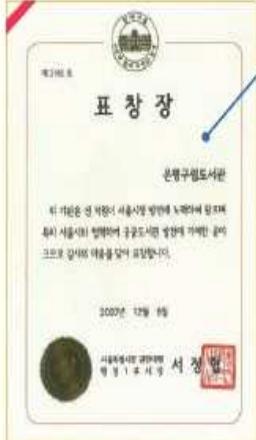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장려상 수상

2019년 서울시 도서관 정책지원 사업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그니어는 도서관" 사업에 참여하여 빌달정 애인을 위한 공간을 개관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정보서비스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포용적 문화 조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상장



표창장



2020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기여 표창장 수상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의 추진방향인 시민이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도서관, 누구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도서관, 더불어 협력하여 상생하는 도서관 등 서울시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시·자·치구 협력 사업 참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해당 업무에 현저한 성과 및 공적에 기여하였다.

2020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경진대회 대상 수상

Book Chef봉사단은 그림책 연구 및 읽기, 낭송회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마침 그림책 읽기 및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현재까지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총 230시간 동시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수혜 이르신은 129명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하며, 더불어 살이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책나래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 홍보부문 선정

은평구립도서관은 책나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현수막, 배너)제작, 보도자료 발송, 품네이시(공시사항), 배너, 카드뉴스) 안내, 도서관 SNS(블로그,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채널 개시, 저서무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및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진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동절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

서울시는 734개 단체를 대상으로 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은실가스를 적전 2년 대비 10%이상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 실천 우수사례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서관 전광 LED등 및 고효율 설비 설치로 교체하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 도서관 수상소감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은평구립도서관에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일직원 일동



은평구립도서관장 철영관

모두가 어려운 시국 속 도서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이 많으셨을 이용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와 같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끈기와 열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분들 모두의 끈기와 열정으로 이뤄낸 깊진 성과이자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족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과장 강진자

우리도서관을 사랑하고 마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기를 보고 있는 지금을 함께 살 이겨내고 행복만 가득한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총무과장 신영학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며, 문화와 자식 정보 서비스에 소외되는 구민 이 있도록, 지역사회와 중심이 되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사실장 김기현

다시다닌했던 2020년 모두 출출 험비리시고, 새해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사하도 은평구립도서관이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체육과장 김호철

은평구립도서관의 수상을 축하하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다 행복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은평구립도서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사무실 담당 최나영

주민분들의 여가와 동료 간의 협심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맞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혼자가 아닌 함께있기 가능했습니다. 좋은 인연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 것은 모든 직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은 직원 모두 건강하고 간식한 일들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인력개발팀

2020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힘차게 성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움직임으로 지역사회에 이어지하는 도서관이 될수록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팀장 강은진

도서관 직원들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아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도서관 이용과 문화생활에 제약과 변화가 있어 혼란스러웠을까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적극 대응해 일상에서 여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다문화 지원팀 팀감 김우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직원들의 힘방울이 모여 각 부분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함께 전진하고 발전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서너팀장 이은숙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직원들이 능력과 열정을 다방면으로 펼치며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은 없다

마크 아그로닌 저 / 신동숙 역
한스미디어
2019



필자 정영술 번역사

한국언어사전 출판부 편집국장, 2014년부터 번역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현대사회는 청춘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성장과 번영이 지상과제인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 시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예찬의 대상이 아니다. 세월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지혜의 전수자는 농경사회의 물량과 함께 그 지위를 잃었다. 아침의 대기와 하늘 빛으로 그 해의 풍요와 빈곤을 가늠하고 그로 인해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노인은 사라졌고 침침해진 눈으로 새로 산 전화기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 어린 손자에게 사정해야 하는 존재만이 남아 있다.

발달한 성형기술은 늙음을 의료적 질환으로 취급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학과 위생은 사람의 수명을 계속 늘여놔 이제 100세에 달하는 것을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볼만한 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사회에서 장수는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침침한 눈과 흔들리는 이빨을 가지고 하루가 달라지는 기억력 속에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노년을 원하지 않는다. 늙어간다는 것, 이제 나에게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고 싶은 카드가 아니다.

'노인은 없다(The end of old age)'를 쓴 저자 마크 아그로닌은 정신의학박사로 알츠하이머병 및 노인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이다. 오랫동안 노인 환자를 돌보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가 '노년'에 대해 가지는 구태의연한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노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삶'은 늙고 아파서 죽는 것이 필연이므로 삶은 본질적으로 비극이라는 생각하에 노화 방지에 힘들이 있다고 알려진 모든 방법을 써 보면서 노화와 싸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늙어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표독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진 존재일 뿐.

그의 말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늙어가는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몸이 아파 더 이상 예전처럼 등산을 즐기거나 뛸 수조차 없는데도 말이다.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안 뛰면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 즐거움을 대신할 다른 무엇을 찾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자는, '젊음'은 무엇이든 해 보겠다는 만용에 가까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지만 대신 '노년'은 그런 용기를 거둬가는 대신에 겪어본 일에 근거한 판단력,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을 선물받게 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실제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적 발견들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퇴보하지만 정신력은 그에 비례하여 둑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뇌의 역할 중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 즉 '지혜'라고 불려왔던 능력들이 더욱 발달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노년이 주는 축복을 찾아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개한다. 먼저 누구에게나 '연령점'이라는 인생의 전환 지점이 오게 되는데, 그 지점은 자신이 쌓아온 신념과 역할, 정체성, 행동방식을 바꾸어야 할 지점을 뜻하며 이 지점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연령점은 일정한 나이(회갑)일 수도 있고 갑자기 들이닥친 질환(고혈압이나 척추 퇴행, 암)일 수도 있으며 자녀의 결혼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 연령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보류, 계산, 해결이라는 4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밟아가야 하며, 이를 잘 풀어나간 사람은 그 공동체에게 가치 있는 지혜의 5왕관(학자, 현자, 관리자, 창조자, 예지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지혜의 5왕관은 사회적이거나 공적인 역할, 육체적으로 가능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또는 교회 등 소규모 그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자녀의 아이를 봄주는 일은 흔히 감당하는 일들이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거나 뒤늦게 알게 된 재능으로 예술가가 되는 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비록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더라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누군가에게 감동과 보람을 주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나날이 성장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소개하면 책을 다 읽은 듯한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의 미덕은 풍부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표까지 소개하는 것에 있다. 사례를 듣고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실천계획표는, 독자로 하여금 연필을 들어 직접 칸을 메꿔가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50대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므로, 직접 읽어 보셔야 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책이 말해주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다. 노년은 대부분의 이들에게 질병과 빈곤의 시기이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만만치 않은 우리 사회는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개인적인 실천의 문제로만 존엄한 노년기를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을 되새기면서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아울러 권해드린다.



Excerpt from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IN

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이야기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도서관에서 가볍게 즐기는 한 뼘 인문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19로 그동안 즐기기 힘들었던 문화생활을 온라인을 통해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가볍게 즐기는 한 뼘 인문학'을 주제로 음악 '대중음악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영화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미술 '사비나 미술관 이명옥관장의 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 등의 강연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 임진모 음악평론가의 '대중음악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 최광희 영화평론가의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의 '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호기심 과학 교실', '행복한 논술', '보태니컬 아트', '엄마랑 아이랑 그림책 북아트' 등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 "한 책, 예술이 되다"

2019년도에 이어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한 책, 예술이 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일정이 8월로 변경되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도서관 공공의 책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도서관 이야기



미래형 독서 프로그램 "포럼 VR"

어린이자료실은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토론프로그램 <포럼VR>을 실시한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시각과 청각, 동작 인식 등 간접체험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어 책 속 상황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 또한 VR 체험 후 토론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주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야간 문화프로그램

"집에서 배우는 슬기로운 라탄공방,
'내 마음을 톡톡 톡 키워라파!'



2020년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집에서 배우는 슬기로운 라탄공방>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탄 공예품을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보며 인테리어 감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내 마음을 톡톡 톡 키워라파!>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주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컬러 유형별 심리 분석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가 되었다.



개관기념 행사

"동백어 필 무렵, 명로진 작가 강연회"

은평구립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로 <동백어 필 무렵, 명로진 작가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명로진 작가(겸 배우)는 <여자와 아내>, <오래된 정원>, <번 호사들> 등 40여 편 드라마에 출연하였고, <동백어 필 무렵>,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전지적 불명동 시점> 등 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드라마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 사회상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강연 후 주첨을 통해 저자 친필 사인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이용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독서의 달 기념 행사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집콕 만렙! 랜선으로 떠나는 여행 이야기> 이탈리아 편, 유설화 작가와 함께하는 <슈퍼거북과 토키>를 진행하였다. 랜선으로 떠나는 여행이야기를 통해 여행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유설화 작가와의 온라인 만남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하여 독서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다.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2020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 노발달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말놀이, 육아에 지친 양육자를 위한 푸드 아트 테라피 등 양육자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양육자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였다.

◆ 북스타트 부모 교육 '책으로 키우는 뇌가 건강한 아이'



◆ 아기와 함께 신나는 책놀이



◆ 푸드 아트 테라피



은평도서문화축제, 집에書(서) 책콕!



비대면 시대 "행복한 꿈지락 책 놀이"

은평도서문화축제 "방구석 퀴즈쇼, 더 퀴즈 온 더 팀플"

은평구에서 주최하고 은평구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동 진행한 2020 은평도서문화축제 「집에書(서) 책콕!」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방구석 퀴즈쇼, 더 퀴즈 온 더 팀플」을 11월 7일 성공리에 마쳤다. 「방구석 퀴즈쇼, 더 퀴즈 온 더 팀플」은 도서를 읽고 가족 단위의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퀴즈쇼로 관련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고 모두가 힘든 현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은평도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이솝 우화 선정도서 소개 후 해당 주제로 독후활동에 참여하는 「행복한 꿈지락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한 이용자들은 다양한 캐릭터 가방을 선택하여 아이들이 직접 바느질을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은평구 공공도서관 블로그에 참여 후기를 남기며 함께 체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는 “가족 바느질은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이라 즐겁고 뜻깊게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완성도가 높아 뿌듯했다”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어린이/다문화자료실에서는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스토리텔링, 스케치 과정, 캐릭터 탄생 배경, 책 속 이야기, 고민 토크 등 그림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작가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참여자들은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을 통해 “그림책 속 그림 하나,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가 평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의 작가님에게 작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나의 도서관 이야기

크로나19 집콕시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방구석 퀴즈쇼~~~
주말 오전을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2020은평도서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런 음식이 생겼대요”와 “말들이 사는 나라” 두권의 책을 가족과 함께 읽어 보고, 사서 선생님들께서 출제해주신 문제를 가족단위로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 상식문제도 있고, 어린이만화, 연예인관련, 아래 개그 까지……

2시간 농안 전문mc 유성님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가족과 함께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참여 했다고 하네요.^^\n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런 음식이 생겼대요”라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을수 있었구요,
책을 직접 빌려보지 않아도 도서관총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자책, 인생서가, 스쿨북스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편리함도 경험 해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은평구립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이용자 김혜숙 2020.11.08



녹번만화도서관

녹번만화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 도서관 전체 방역작업을 실시하였고, 신간 만화도서 구입 및 매주 환경정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열람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2020년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동윤과 함께하는 만화교실

인기 만화 도서 '귀신 선생님 시리즈'를 지은 남동윤 만화가를 초청하여 <남동윤과 함께하는 만화교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만화 제작과정을 배우고 직접 캐릭터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그린 캐릭터를 활용하여 마지막에는 빙고게임으로 마무리하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코로나19 속에서도 다채로운 온라인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월별 테마 전시와 함께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가족 캐릭터 그리기>를 통해 가족의 특징을 잡아 캐릭터를 그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연 가족 비누 만들기>, <귀여운 손목 시계 만들기>와 같은 만들기 프로그램은 SNS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만들기 키트로 집에서 만들어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

녹번역 인근에 위치한 녹번만화도서관은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북스타트 사업에 참여하여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0~18개월 아이를 위한 '북스타트', 19~35개월 아이를 위한 '북스타트 플러스'책꾸러미를 은평구공공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녹번만화도서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모여봐요 여름의 숲" 성료

상림마을작은도서관에서 방학맞이 여름 독서교실 "모여 봐요 여름의 숲"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여름 독서교실은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여름과 숲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책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토론과 스토리텔링, 퀴즈, 포일아트, 곤충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독서교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사회적 이슈에 맞추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다같이, 다(多)가치" 진행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그림책 "반쪽이"와 "길아저씨 손아저씨"을 주제로 하여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과 더불어 불편의 정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함께 돋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동화구연과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후시설 공사에 따른 휴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이 7개월간 도서관을 휴관하고 시설 전면 개보수에 나선다.

좁은 공간탓에 열람석 확대가 요구되어 왔으며, 냉·난방 기기의 짙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설비용량의 부족으로 인한 간헐적 정전과 강우, 강설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장서가 훼손되고 열람석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림마을작은도서관은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자료 열람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1년 4월 재개관 예정이다.



사서들이 추천하는 도서



별세 :
1994년, 닫히지 않은
기억의 기록

김보라 외 5명 저
아르테
2019

중등학교 1학년 반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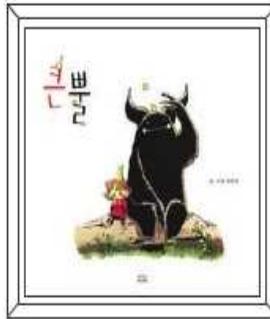
베를린국제영화제부터 국내외 영화제 55관왕을 수상한 영화 <별세>를 책으로 만나보자.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영화에서 출발하지만 영화 안팎의 세계를 섬세하게 짚어 내고 확장하며, 1994년의 사회와 오늘, 예술과 현실을 연결하는 책이다. 미국의 그래픽노블 작가 앤리슨 백델과 김보라 감독이 직접 만나 여성 서사,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함께 다루는 창작자로서 나눈 대담에는 시대와 공간, 매체를 뛰어넘어 예술가로서, 시대라는 물질 안에서 역동하는 개인으로서의 진솔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영화와 사회를 함께 읽어 내는 네 편의 글은 성수대교가 불괴하고 김일성이 사망한 영화 속 시공간을 이미 닫힌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로 불러낸다.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이원영 저
위즈덤하우스
2020

제7기 교육부 선정 진성인

극지연구원 눈으로 관찰한 남극 펭귄의 삶을 담은 에세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펭귄들의 일상을 기록했다. 때로는 포식자를 만나고, 때로는 눈보라를 견디며 펭귄들은 바다를 향해 끝없는 길을 걷는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성장해간다. 주어진 시간을 끈기 있게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삶이 막막하더라도 꾸준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된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이다.



큰뿔

함혜영 저
평사리
2019

다문화가족상 사서 최자원

동화 속 큰뿔이는 다문화 가정이 다르다고 느끼는 우리의 시선이 만들어낸 다문화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어느 부모와 차이가 없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한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지나칠 때가 많다. 큰뿔이라는 도서는 다문화가정이 현대 사회에서 받고 있는 따가운 시선과 그 시선을 오롯이 가족의 힘으로만 이겨 내야 하는 아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편견없이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서울에 내 방 하나

권성민 저
해냄
2020

사서팀 사서 강승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삶을 꾸려나가며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된다. 자신만의 단단한 자립 생활을 이어온 권성민 피디는『서울에 내 방 하나』를 통해 홀로서기를 결심한 이들에게 담담한 응원을 건넨다. 이 책은 스무 살에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한 저자가 경험했던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현재의 삶을 그려나가는 에세이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서울에 내 방 하나'를 마련해온 그 시간을 통해 혼자 버텨냈던 자취가 타인들 속에서 나를 지키며 성장하는 자립이 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각자 자립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도 괜찮다고 말하고, 자주 넘어지더라도 쉽게 지치지 않기를, 조금 더 힘내기를 바란다.

사서추천도서



쓰레기책: 왜 세계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이동학 저
오도스
2020

책장 비밀 세계 속총총

쓰레기 배출일이 오면 1주일 동안 모아 둔 쓰레기봉투 서너개를 들여다보니 집 암에 내놓는다. 두 식구 사는 집에서 나온 쓰레기 양을 보면 놀랄 때가 많다. 우리 별 지구에는 사람이 약 70억명 살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매일 만드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던 참에 이목을 끄는 책을 만났다. 매립할 곳이 없어서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이야기, 쓰레기로 이뤄진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려진 플라스틱이 둘고 돌아 인간이 먹게 되는 과정, 쓰레기로 인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까지.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내용들이 있지만, 읽고 난 후에는 친구들,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책이었다. 함께 읽어보고 고민해보길 바란다.



뉴 키드

제리 크래프트 저
보물창고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서 이정훈

어동청소년문학상 뉴베리 상이 제정된 후 100년 역사상 최초로 그레픽 노블 장르로 뉴베리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조던 뱅크스는 그가 꿈꾸 예술 학교 대신 엄마가 추천한 명문 사립학교에 가게 된다. 사립학교에서는 대다수가 백인으로, 조던은 몇 안되는 유색인종이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 인종적 편견, 왕따, 소외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유쾌하면서 대담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조던은 스케치북에 그린 만화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야기 중간마다 조던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유머러스하게 표현된 이 그림은 작품의 재미를 높여주어 어린이 친구들부터 청소년기를 겪은 성인까지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검은 손길, 온라인 그루밍

김희라 저
크레용하우스
2020

어린이 자료집 서서 나 출판

SNS의 사용 연령이 다양해지고, 다소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장점이 부각 되는 것에 비해 단점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올바른 SNS 사용 방법 습득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소통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이 점차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부모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미리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도서를 추천한다.



오늘 이 슬픔이 언젠가 우리를 빛내줄 거야

새벽 저
위즈덤하우스
2020

서평마을자원센터 서서 이경숙

편의의 만남을 준비하여 인플루언서이자 뷰티 유튜버로서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인지 찾은 기침이 계속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진단을 받게 된다. 병원에 다녀와서 밀린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녀는 퇴원은커녕 출출이 이어지는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고 전과는 다른 이유로 바쁜 삶을 살게 된다. 뷰티 유튜버임에도 치료를 위해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밀어야했고, 현재까지도 항암이 이어지는 투병생활의 연속이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한다. 그녀의 진실이 담긴 이 책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고독과 힘듦, 걱정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서울시민카드(앱) 간편가입 서비스란?

서울시민카드(앱)을 통해 도서관 등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 도서관·책단비서비스·도서 대출 등 도서관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대상

은평구 공공&작은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시민 누구나

이용 시설

은평구 공공&작은도서관



| 서울시민카드 앱으로 은평구공공도서관 서비스 두배로 즐기기!

은평구공공도서관 책단비서비스

- 책단비 서비스란?

은평구 도서관 통합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 '예약도서 무인 대출·반납기' 장비를 이용해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서비스와 다른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대출/반납이 가능한 '상호대차서비스'의 총칭이다.

- 이용 대상 : 은평구공공도서관 대출회원(정회원)

| 스마트도서관

대 출 권 수 : 5권, 14일간

*스마트도서관 대출권수는 은평구립도서관 대출권수에 포함

설 치 장 소 : 연신내역, 불광역, 역촌역

비지도서수 : 장비별 약 500여권

이 용 방 법 : 설치된 지하철역에 방문하여 기계에 비치된 도서를 현장에서

대출/반납하는 서비스, 장비별 비치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리브로피아에서 검색 가능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해당 대출 스마트도서관에서 반납 가능

| 예약도서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

예약권수 : 1회 신청시 2권 가능(신청도서 대출 후 추가 예약 신청 가능)

설치장소 : 녹번역, 구파발역, DMC역, 상림마을생태공원 버스정류소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검색 후 '무인예약' 버튼 클릭하여 예약, 도서관 수령문자 수신 후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도서 대출(회원증 지참)



서울의 공공시설 회원증이 내 스마트폰 안에 쏙!
내 주변 공공시설 정보와 할인혜택까지
서울시민카드(앱)으로 편리한 생활 누리세요!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2020년 3월 ~ 11월)

김민정 김정주 김채린 노유리 문정인 박서현 백지민 서지민 신수현
안차미 어서현 윤지선 이채연 정재윤 최윤교 황혜영

*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락되신 분은 다음 호에 게재하겠습니다.



도서 기증자(개인)

박성대 성운 큰스님 손상하 송현주 심혜화 이영우
정노숙 정세운 최은정



도서 기증처(기관)

ACC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상일연극사랑회 김영사 바이블리더스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연구원 선물의집 소명출판 삼월 을재 워크룸프레스
이루리블로나 신주시 토퍼먼 하이키출판사 한국차문화협회

자료 기증 안내 및 방법

○ 기증대상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구민의 유통망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야의 자료를 기증 받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도서의 기증을 활성화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는 은평구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수집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 수험서 및 문제집
- 나. 오락용 출판물 및 잡지
- 다. 날장자료 및 원고
- 라. 문고본(단, 문고본 이외의 자료가 없을 경우는 수집)
- 마. 출판된지 5년 이내의 도서에 한함.



○ 기증방법

- 가. 자료를 우편 또는 택배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 하시어 기증하시면 됩니다.
- 나. 보내실 곳은 : 은평구립도서관 사서과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불광2동 산59-32)
전화 : (02)385-1671~4 | FAX : (02)352-2944 | 담당자 : 책단비팀

- 다. 자료가 다수(100권 이상)이면 본 도서관 직원의 출장수집도 가능합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은평구립도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84(불광동)

T. 02-385-1671~4

3F 일반열람실

평일 · 주말 08:00-22:00

2F 열린공간자료실

평일 · 주말 09:00-18:00

(디지털자료コーナ, 청기·간행물コーナ)

1F 종합자료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미림이자료실·다문화자료실·유아열람실

평일 · 주말 09:00-18:00

B1 시끄러운도서관

평일 · 주말 09:00-18:00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48-25

T. 02-383-7557-8

평일 · 주말 09:00 - 18:00

녹번만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T. 02-356-1676

평일 · 주말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관일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기타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

* 점부지침에 따른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운영시간은 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epl.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IBRARY EPISODE

은평구립도서관

